## 인터뷰-제16대 총장 예비 후보자

# “불확실성 극복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대학 만들 것”

**황주호 예비 후보자**

정리: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학력**
서울대 원자핵공학과(학사), 미국 조지아공대(박사)

**주요경력**
경희대 산학협력단장, 경희대 공과대학장, 경희대 국제부총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한국원자력학회장

- 연 300억 이상으로 기부금 증액
- 융합전공 확대, 인공지능 이용한 기초교육
- 세계적 연구팀과 연계 구축, 공간 확보
- 투명하고 진정한 소통이라는 충분조건 만들 것

**Q1. 예비 후보자 등록 계기는.**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라는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창학 이념을 계승해 ‘미래를 약속하는 자랑스러운 우리대학’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직 수행 중 해당 기관을 세계 8위의 연구 성과 기관으로 만든 사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LINC+ 사업을 통한 융합신학문의 발전, 미래과학클러스터 단장 직 수행 중 만들어 놓은 9개의 융합전공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재양성과 학문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학문 분야를 고르게 아우르면서도 특성화와 융합 가능 분야를 찾아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누구를 위한 대학인지, 무엇을 위한 움직임인지, 향후 대학의 나아갈 바를 함께 고민하고 헌신하는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Q2. 최우선 정책은.**

그 첫 번째는 대학의 위상을 높여 세계 100위권 대학에 진입하는 것이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학문에 대한 유연성을 추구하면서도 우리 대학만의 융합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성장과 발전 방향을 구성원과 함께 고민해 이루고자 한다. 두 번째는 총장 주도 모금을 통한 연 300억 원 이상으로 기부금을 증액하는 것이다. 기후문제 등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교내외 연계 사업 진행과 마지막으로 취업률 75% 달성이다.

**Q3. 재정 확충 방안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총장 주도 기금 모금체제를 갖춰 연 300억 이상으로 기부금을 증액하겠다. 동문 졸업 30주년 상봉 행사 정례화와 비경희인의 경희인화 유도로 경희를 위한 기부 문화를 만드는 스토리텔링 기부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원)의 자율 사업을 격려하고 이를 위해 자체사업 인센티브의 50%를 재투자하는 구조를 제도화할 것이다. 산학협력단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의 미래 수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기획해 연 1,600억 원에서 2,500억 원 규모로 키우려 한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 자율주행, 디자인, 인문기반 서비스 등으로 분야를 확대하여 현재 1개인 학교기업을 5개로, 7개인 자회사를 20개로 늘리고 창업기업을 연 3개씩 증가시켜 재정 확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Q4.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향과 원칙은.**

현재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의 환경미화, 조경, 시설 분야 근무자 200여 명의 정규직화를 완료했다. 이는 화합과 상생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일이다. 때문에 앞으로도 정규직이 모든 행정 서비스를 맡는다는 원칙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자 한다.

> 재정 건전화로 발전 기틀 마련해
> 학생의 사회진출 적극 지원하고
> 졸업 이후의 100년을 자랑스러운
> 경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Q5.교육 혁신의 핵심은 무엇인가.**

대학 졸업 후 100세 이상 살아가게 될 학생들의 미래에 올바른 교육 방향은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다. 미래 대학은 지식과 지식, 지식과 세상을 연결하는 역할과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문 분야 간 융합전공 9개를 30개로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기초교육을 모든 전공 분야에 적합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캠퍼스 내 수익 창출 클러스터를 유치할 것이다. 나아가 현장실습 수준을 높이고 기업 연계 프로그램도 확대할 것이다. 거점 오픈랩을 통해 실전을 대비하고 교육혁신 콘테스트를 실시해 새로운 교과 과정을 발굴, 수용하고 전공심화의 방법론을 강화하겠다. 수강신청제도와 강의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식당의 품격을 올리는 노력을 기울이고 주차와 통행, 실험실 사용 안전 보장에도 힘쓸 계획이다. 취업률 또한 75%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것이다.

**Q6.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구체적 지원책은.**

외국인 학생 수요를 분석하고 각 학문 분야별로 자격 기준을 정비해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국제교육센터(가칭)를 구축해 학업역량 강화를 위한 입학, 학습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교육 공간을 제공하겠다. 글로벌 역량 제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내국인 학생과 동등하게 부여받을 것이다. 모든 학생의 상호 관계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해 국제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Q7. 연구 역량 강화 방안은.**

지구적 문제에 도전하는 인문과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 원천성 주제를 연구할 팀을 교내 공모로 선정해 세계적 연구팀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 과정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을 역임하며 해당 기관의 연구 성과를 세계 8위 수준으로 향상시켰던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다. 창학이념과 연계한 인문 사회 예술분야 지속 연구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정부 및 지자체 연구 사업을 현재 연 1,600억 원에서 2,5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시킬 것이다. 기존 학술 연구 탁월 교수에 대한 각종 지원을 추진하며 학문 분야 별 우수 신임 및 거장 교수를 대폭 영입하고 현재 3명인 세계 1% 연구자를 6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학센터 건립,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 및 정비, 연구공간 확충을 통해 신규 대형과제 수주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 계획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Q8.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방안은.**

우리학교 졸업생의 전일제 박사과정 진학 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 박사, 석사, 학부의 동문 간 학문 세대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공계 및 인문계 학과들에 각각 10명 내외의 석·박사과정을 운영하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며 국제적으로 연계한 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박사 후 과정 기회를 부여하는 우수 박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Q9.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학내 의사 결정은 정해진 기구에서 절차를 충실히 지킴으로써 필요조건을 채우게 되지만 구성원에는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알리기 위한 노력과 듣기 위한 노력이 동등하게 진행돼야 한다. 공대 학장에 재임하던 시절 매번 학과장 회의록을 공대 학생회에 공개, 확인 서명을 받았다. 이는 현재까지도 공대의 전통으로 지속되고 있다. 기구와 절차라는 필요조건에 투명하고 진정한 소통이라는 충분조건을 충분히 만들겠다.

**Q10. 권력형 인권침해 방지 정책은.**

성폭력 및 폭력 예방교육 등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 역시 품격 높은 학내 문화가 만들어져야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각종 예방 교육 동영상을 공급하고 영상 후기 공모전과 발표회를 갖는 등 규제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Q11. 거액의 지원금을 받고 시행 중인 사업(예 : LINC+ 사업,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방침은.**

성공적인 SW중심대학 사업을 위해 전공별 맞춤형 SW교육을 확산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자면 ‘한국어학SW’, ‘행정학SW’, ‘약학SW’의 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SW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각 단과대학별 SW스튜디오도 개설할 계획이다. LINC+ 핵심 추진 사업에는 연계형 교육과 지역사회 기업과의 쌍방향 산학협력 활동이 있다. 이를 위해 상호 연계한 전공을 지금의 9개에서 3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현재 양 캠퍼스에 각 1개씩 있는 오픈랩(Open Lab)을 캠퍼스 거점 건물 별로 설치하고자 한다. 이같은 공간의 활용 역시 학생들에 의한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을 독려해 기업과의 쌍방향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교수와 학생의 창업을 위한 지원체제를 만들고 국내 기업을 중심의 현장실습도 해외 유수기업, 공기업, 연구기관, KOTRA의 83개국 123개 해외무역관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양 캠퍼스 산학협력 활성화 스테이션의 역할이 가능한 산학협력관을 임기 내에 건립할 것이다.

**Q12. 국제캠퍼스 부총장 재임 당시 이룩한 성과와 한계점은 무엇이며 이를 토대로 대학 경영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여러 차례에 걸쳐 거의 모든 직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소통에 전력을 다했다. 교육부 LINC+사업 추진 시 창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사업을 수주하는데 기여했고 미래를 대비한 ‘소프트웨어융합학과’와 이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설립을 추진했다. 미래과학클러스터, 바이오헬스클러스터 추진 기반을 마련했고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사업 선정에 기여했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이 자랑스러워하는 학교를 만들면 모든 것은 쉽게 이뤄지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밝게 약속한다는 것이다. 총장은 학교 경영의 총책임자다. 학교 위상을 높여 세계 대학 100위 내에 진입시킬 것이며 재정 건전화를 기해 발전의 기틀을 튼튼히 할 것이다. 학생의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해 졸업 이후에도 살아가야 할 100년을 경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대학을 만들겠다.